



전주 하계올림픽 새 도약문 열다

김관영 지사, IOC 방문

계기 향후 계획 밝혀

올림픽 유치추진단 확대
국제과 신설 등 조직개편
내년 1차 추경 예산 반영
IOC에 유치의향서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를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뒤, 지난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문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의 이번 출장은 단순한 인사 차원의 만남이 아닌, 전북의 문화적 가치와 스포츠 인프라, 도정의 실행력, 그리고 도민의 열정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2박 4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폴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미래유치위원회 위원장 등 IOC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북의 독자적인 유치 전략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방 도시 연대', '친환경 올림픽', '문화 올림픽'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전북형 올림픽 구상을 제시하며, 전북도정의 혁신적인 추진력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미래비전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지역·이념 간 분열이라는 국내 현실을 극복하고 올림픽 정신인 다양성의 통합을 실현하는 모델로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선수촌 분산 운영 방안, 경기장 접근성 확보, 국내 도시 간 연대 가능성 등에 대한 실무 차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질문자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오랜 역사에 빛나는 전통문화 유산,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본고장이다"라며, "전주의 전통과 현대적 경쟁력을 결합한 새로운 올림픽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옥 마을, 비빔밥 등 전북이 지닌 고유 자산을 통해 올림픽이 단순한 경기대회를 넘어 비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감동을 전하는 장이 될 수 있음을 강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를 방문과 관련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했다.

김 지사는 또 "IOC의 올림픽 대회 유치 추진 방향에 맞도록 신규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의 개선 및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환경 부담과 예산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전북의 실현가능성 높은 계획을 IOC 측에 설명했다.

선수촌의 구상에 대해서는 "전주를 중심으로 핵심 지역에 메인 선수촌을 배치하고, 인접 지역에는 분촌 개념을 도입해 단합된 분위기를 유지하는 방안을 설명, 참가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 개선 역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2개 과 5개팀으로 구성된 올림픽 유치추진단을 3개 과 10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제과를 신설해 실무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도 1차 추경 예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예산과 국제 교류예산, 국내 유치 불 조성을 위한 홍보비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도의회 의결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대한체육회 등의 협조를 통해 IOC에 유치의향서(FOI)를 제출할 계획이며, 국내외를 아우

르는 맞춤형 홍보전략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이 전북이 세계 속에 당당히 서는 첫걸음"이라며,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올림픽 유치가 단순한 국제경쟁을 넘어 도민 모두의 희망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OC와의 이번 공식 만남은 전북이 올림픽 유치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전북 전주가 지닌 전략적 강점을 바탕으로 이제 국제무대에서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통합,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문화와 스포츠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의 도전 정신은 이번 국제외교무대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전북이 내세운 도시 연대와 문화의 힘은 향후 지역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전북의 도전은 이제 시작됐다.

국제사회와의 실질적 소통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전북은 세계 무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항일 독립운동의 위대한 유산’

광복회 전북지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광복회 전북지부(지부장 이강안)는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지난 11일 순창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서거석 교육감,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과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순창제일고등학교 학생 300여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탄생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순창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꾸미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을 알리는 약사 보고에 이어 최영일 순창군수의 기념사와 서거석 교육감의 축사로 이어졌고, 학생들이 임시정부 헌장과 선언서를 낭독하여 대한민국의 탄생을 선포하였고, 변은진 교수의 전시 체계의 비밀결사에 관한 특강으로 항일 독립운동의 유산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했음을 알게 됐다.

이강안 지부장은 "순창은 일제 침략이 시작되던 을사늑약 이후 의병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1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가 중 독립장 포상자가 가



장 많은 도시이며, 대동아전쟁이 치열하던 시기 학생 비밀결사 운동의 중심이었다. 순창농림고등학교의 화병회, 광주사범의 무등회, 전주사범의 우리들등 비밀결사의 중심이 되어 광복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던 의기 높은 고장이라며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함께하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기억하기 위해 순창에서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념행사에는 화병회 활동으로 정부포상을 받으셨던 민병호 선생님의 딸인 민혜경 여사(정동영 국회의원 부인)가 함께해 그 의미가 더 됐다. /이만호 기자

탄소소재 산업 혁신 이끌 성능시험장 가동

전주시·탄소진흥원, 완결형 밸류체인 구축·기업지원 박차

연면적 4707㎡ 규모로 시험장 전용공간 조성, 장비 19종 도입

전주시가 대한민국 탄소소재 산업의 혁신을 이끌 테스트베드(성능시험장)를 본격 가동기로 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준공된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전용공간에 대한 장비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설 가동에 돌입했다.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는 항공과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등 탄소소재가 적용되는 핵심 수요산업과 연계한 기술 사업화 및 수요 창출을 위한 것으로, 지난 3년에 걸쳐 총 19종의 신규 장비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캠퍼스종합기술원 내에 구축됐다.

성능시험장은 연면적 4,707㎡, 지상 2층 규모의 전용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소수소재장용기 △개관용 비행체(FAV, UAM) △연료전지 △공력블레이드 등 타깃 품목에 대한 시험분석과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구

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는 탄소소재부터 중간재,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완결형 밸류체인을 구현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에 구축된 장비를 비롯한 탄소소재 관련 장비 이용을 희망할 경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탄소산업 공동활용 플랫폼 '카보넷'(www.carbonet.or.kr)을 통해 사용 가능 장비 목록과 기술 요소별 적합한 장비 정보 확인 및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장비 사용료의 40%를, 중견기업은 3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사업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탄소소재 모빌리티·에너지·환경 분야 적용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8억 원 등 총 158억원이 투입돼 추진됐다.

최근 장비 시험 운영 기간 기업 수요가 높았던 △소수소재용 라이너 제조시스템 △열가소성 오가노이트 컨

솔리데이션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테스트가 진행됐다.

시는 향후 테스트베드 내 구축된 장비를 활용해 탄소소재 중간재 및 시제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제품의 정밀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시험 운영 기간 ㈜더원(전북 완주군 소재)은 수소탱크용 라이너 제조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승용차용 수소탱크 라이너의 공정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을 진행했다.

(주)솔루션루트(대구광역시 소재)은 열가소성 오가노이트 컨솔리데이션시스템을 이용해 기능성 아웃도어 의료용 합성소재 개발을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기도 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테스트베드 구축을 계기로 국내 탄소소재 기업들이 제품 개발 및 실증 과정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상용화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화단지 내 최고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다 많은 관련 기업들이 탄소소재 산업의 최전선인 전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희정 기자